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주의] 주관식이 있음.

1)

1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차등의 원칙을 포함하여 정의의 두 원칙이 요구하는 배경적 제도들의 규칙들은 지속적이고 공정한 사회 협력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안되었다.

을: 차등의 원칙에 따른 재화의 재분배는 소유 권리적 정의관과 양립 불가능하다. 소유 권리적 정의관은 소유에 이르는 과정이 정당하면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다고 본다.

◎ 학생 답안

갑은 ㉠ 차등의 원칙은 공정한 사회적 협력을 위한 원칙이라고 보며, ㉡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에 기여할 경우에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을은 ㉢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며,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가 분배의 공정성의 정당화 조건이라고 보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 골라.

18 그림은 갑, 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을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다수가 갖는 정의감과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시민 불복종은 도덕적으로 그른 것을 중단시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때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 행위로 인한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보아야 합니다.



보기

ㄱ. 갑: 시민 불복종은 비민주적 권위에 저항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ㄴ. 갑: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호소하며 정치 체제의 변혁을 시도한다.

ㄷ. 을: 시민 불복종은 성공 가능성과 불복종 행위의 영향을 고려해 실행되어야 한다.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며 실행되어야 한다.

3)

1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사회 계약의 목적인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얼마간의 인적 손실이 따르게 마련이다. 남들을 희생시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할 때에는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한다. 죄인을 죽일 때는 '시민'으로서보다는 적으로서 죽이는 셈이다.

(가) 을: 법은 최대 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벌의 크기는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ㄱ. A: 사형은 생명 보존의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다.

ㄴ. B: 살인자에 대한 사형 여부는 사회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ㄷ. C: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ㄹ. C: 형벌의 크기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정해져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19 갑 사상의 입장에서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원조는 도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해악인 극단적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지역과 국가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빈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을: 원조의 목적은 세계의 모든 빈곤자들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고통받는 국가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만약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지배된다면, 자원이 너무 부족해 질서 정연해질 수 없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다.

- ① 극빈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② 항상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먼저 도움을 주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원조의 목적은 공익 증진이 아닌 부정의의 교정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빈곤한 사람에 대한 원조 여부는 돕는 사람의 선택에 맡겨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원조의 목적임을 간과하고 있다.

5)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하는 공공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다. 이 행위는 양심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한 도덕관에 근거한 행위와는 다르다.

- ①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양심과는 관계없이 공통된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 ③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시민들은 모든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⑤ 정의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전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은 유일한 저항 수단이다.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다 골라.

국제법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즉 1) 국가들은 외적인 관계에서 보면 법적 관계에 있지 않다. 2) 이러한 상태는 전쟁의 상태이며 서로 이웃해 있는 국가들은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할 책무가 있다. 3) 근원적인 사회 계약의 이념에 따라 하나의 국제 연맹이 필요한데, 그것은 서로 타국의 국내 불화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방위를 위한 것이다. 4) 그럼에도 이 결합체는 시민 체제에서와 같은 주권적 권력이 아니며, 단지 동료 관계를 함유해야 한다.

<보기>

- ㉠. 국제 연맹은 소속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국가들은 타국의 침략 행위에 대한 방어 전쟁을 할 수 있다.
- ㉢. 국가 간 현실적인 적대 행위가 없다는 것이 영구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 국가들은 타 국가 내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무력으로 개입해야 한다.

7) 골라.

갑: 분배적 정의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명예나 금전 [富]처럼 공공 재산을 분배함으로써 올바른 중간을 찾는 것이다.

을: 분배적 정의에 관한 대부분의 원리들은 정형적이다. 하지만 소유 권리에 근거한 나의 입장은 비정형적이다.

병: 분배적 정의는 계급과 계급이 대립하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공산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다.

<보기>

- ㉠. 갑: 각자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공공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
- ㉡. 을: 도덕적 공과(功過)와 사회적 효용을 기준으로 하는 한 분배는 정의에 부합한다.
- ㉢. 병: 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
- ㉣. 갑, 을: 거래에 의한 취득과 양도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3

8)

8 다음 관점을 지닌 사람이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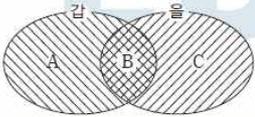
윤리적인 동정심을 가진 예술가는 없다. 예술가가 윤리적인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매너리즘이다. 병적인 예술가도 있을 수 있다. 예술가란 어떤 것이든 표현할 수 있다. 사고와 언어란 예술가에게는 예술을 위한 도구이다. 악덕과 미덕은 예술가에게는 예술을 위한 재료이다.

- ①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
- ② 창작자와 감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만이 가치를 지닌다.
- ③ 예술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 활동의 표현이다.
- ④ 인간의 도덕적 품성 함양에 이바지하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 ⑤ 예술의 가치는 예술이 지니는 아름다움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한다.

9)

9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자유 세계에서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으로부터 발생한다.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다.
 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우선,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와야 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개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 ㄴ. B: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 ㄷ. B: 평등한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 ㄹ. C: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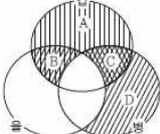
갑: 철학자는 욕제를 신통치 않게 여기며, 그 영혼은 욕제를 피하여 홀로 있으려 한다. 사유는 청각이나 시각, 고통, 쾌락이 정신을 괴롭히는 일이 없는 죽음 이후에 가장 잘되는 것이다. 영혼은 욕제적 감각이나 욕망을 전혀 갖지 않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할 때 가장 잘 사유하게 된다.

을: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는 현존재이다. 인간에게 죽음은 고유한 것이며, 결코 남과 바꿀 수 없는, 반드시 찾아오는, 그리고 그것을 초월해서 살 수 없는 가능성이다.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은 자기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 ① 갑은 죽음을 내세에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죽음을 순수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감옥으로 본다.
- ③ 을은 죽음을 인지하면 누구나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유한한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 죽음을 직시할 수 없다고 본다.

11) 골라.

(가) 갑: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하지만 그것이 최소 수혜자의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로 제한된다.
 을: 유용성이란 어떤 대상이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이익, 쾌락, 좋음, 행복을 산출하거나 해악, 고통, 악, 불행, 막는 경향을 지닌 속성을 말한다. 그것이 공동체 전체라면,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말한다.
 병: 누가 소유물을 받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은 주는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 즉 받는 사람 중심의 이론은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권리를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C: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병만의 입장

보기

- ㄱ. A: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
- ㄴ. B: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이다.
- ㄷ. C: 천부적 재능의 우연한 분포를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ㄹ. D: 국가의 역할은 계약의 집행 및 강압,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된다.

12)

2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인류는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 행위를 못하게 막는 공포가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가 바로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며, 우리가 뜻하는 공포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은 또한 책임의 대상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보기

- ㄱ. 인간의 선택만 아니라 인간 외적인 사물의 선택도 탐구해야 한다.
- 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의 실제성에 대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
- ㄷ. 현대에게는 미래 세대에 대한 비호혜적 책임의 의무가 부과된다.
- ㄹ. 도덕 철학은 불행이 아닌 구원의 예언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18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다른 존재에 대한 유용성이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복지를 추구하는 최소한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류와 같이 '삶의 주체' 기준을 충족하는 존재라면,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내재적 가치를 갖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우리는 이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을: 동물은 쾌고를 느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다고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물은 인간과 달리 도덕 원리를 파악하고 적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권리는 인간 세계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또 인간 세계 내부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 ① 갑: 삶의 주체인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 ② 갑: 도덕 무능력자에게는 도덕 행위자들의 권리를 인정할 의무가 없다.
- ③ 을: 동물의 세계에도 도덕적 관계가 존재한다.
- ④ 을: 인간만이 도덕적인 존재이므로 권리를 갖는다.
- ⑤ 갑, 을: 인간은 동물을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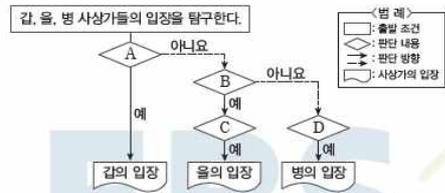
14)

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중립적인 개념은 '개인의 소유물'이다. 각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 정의이다.
- 을:** 분배적 정의의 핵심 과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사회 체제는 특수한 상황의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기획되어야 한다.
- 병:**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이다. 세계 안에 존재하는 가치들은 사회 속에서 가치의 구상과 창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이한 사회에서는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

(나)



보기

- ㄱ. A: 천부적 재능 자체는 공동 자산으로 간주될 대상이 아닌가?
- ㄴ. B: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상황에서 고안되어야 하는가?
- ㄷ. C: 자본주의 복지 국가는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가?
- ㄹ. D: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문화적·역사적 맥락에서 의미가 부여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원조는 공리주의 입장에 기초해 빈곤한 사람들의 고통의 감소와 기본적 욕구의 충족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 을:** 원조는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 ① 갑: 원조는 친소(親疏) 논리와 개인의 소유 권리론에 근거해야 한다.
- ②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 ③ 을: 원조의 목적은 전 세계 최소 수혜자들의 복지 실현에 있다.
- ④ 을: 원조는 재분배나 개인의 복지가 아닌 사회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⑤ 갑, 을: 원조는 윤리적 의무이며 세계 시민주의 정신에 근거해야 한다.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국가의 권력, 또는 입법부의 권력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보장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하며, 입법권은 인민의 평화와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을: 국가의 권력은 계약 이행의 강제, 절도 행위의 금지 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 국가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발생하며,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최대로 포괄적인 국가로 남는다.

- ① 갑: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해 인민은 저항할 권리가 없다.
- ② 갑: 국가는 인민의 자유 보장에 반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을: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소유물이 이전된 결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국가는 근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 ⑤ 갑, 을: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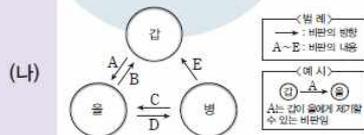
17)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어떤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존재들 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을: 모든 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성장, 발전, 번식을 지향하는 존재는 고유한 선을 지닌다.

병: 욕구를 가진 존재는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 이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이며 수단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보기

- ㄱ. A: 종(種)의 차이만으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ㄴ. E: 왜고 감수 능력이 삶의 주체인 동물의 복리(福利)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 아님을 간과한다.
- ㄷ. B, D: 인간은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님을 간과한다.
- ㄹ. C, E: 성장한 포유 동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18)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만한 공통의 동의와 사람들 간의 분쟁을 판결할 공통의 척도에 따라 확립된 안정된 법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상태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사회를 만들게 된다.

을: 일정한 생활 근거(恒産)가 없더라도 일정한 마음(恒心)을 갖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일반 백성은 일정한 생활 근거가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어진다.

- ① 갑은 국가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징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국가가 백성에게 물질적 안정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국가가 인의(仁義)가 아닌 공정한 법(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갑은 국가의 정당성이 계약에, 을은 군주의 정당성이 하늘의 뜻을 받드는 도덕성에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국가가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19)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영원한 평화를 위해 전쟁을 전제로 하는 상비군은 조만간 폐지되어야 한다. 또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을: 전쟁이나 테러 같은 직접적 폭력과 달리 사회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폭력도 있다. 문화적 폭력은 이 두 가지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① 갑: 전쟁을 영원히 종식하기 위해서 국가 간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
- ② 갑: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이방인은 일시적 방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③ 을: 문화는 폭력의 정당화는 물론 평화의 정당화 기능도 수행한다.
- ④ 을: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접적 폭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 ⑤ 갑, 을: 제도 개선이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20)

8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으며,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다.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힘이다.

을: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 개체들은 단순히 생존한다는 것을 넘어 지각과 기억, 선호와 복지 등을 지닌 삶의 주체이다.

병: 흙, 물, 식물, 동물은 자연 상태로 존속할 권리가 있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생명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수반한다.

(나)

① D: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개체가 지닌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② F: 인간은 자연과 동물을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③ A, C: 이성적 사유 능력이 없는 존재도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④ B, D: 도덕적 무능력자라도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⑤ B, E: 생명 공동체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임을 간과한다.

21)

10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통치된다면,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부가 빈약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없다. 질서 정연한 사회와 고통받는 사회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천연자원의 유무나 빈곤이 아니라 정치 문화, 정치적 태도 등이다. 고통받는 사회들은 정치적·문화적 전통들을 결집하고 있으며, 질서 정연한 반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① 빈곤한 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원조만이 도덕적 의무이다.
- ② 원조의 목적은 빈곤국의 물질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③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④ 원조를 통해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켜야 한다.
- ⑤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사회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22)

7 (가)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고찰한 것만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을: 생명이 있는 것은 연기(緣起)에 의해 있는 것이니 폭력을 쓰지 말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여도 안 되고, 죽이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병: 생명이 있는 존재는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 보존과 선(善)을 향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생명의 중심이다.

(나)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르

④ 가, 다, 르 ⑤ 나, 다, 르

보기

- 가. A: 자연을 인간의 의도에 맞게 응용하고 조작해야 하는가?
- 나. B: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물망처럼 상호 의존적 관계인가?
- 다. C: 생명을 존중하는 불살생(不殺生)과 방생(放生)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가?
- 르. D: 생명 공동체의 도덕 행위자는 모든 생명체들의 선을 존중해야 하는가?

23)

6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각 개인에게는 신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 그것은 일종의 초소와 같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명에 순종하여 따른다면 아무리 비천하고 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밝게 빛나고 매우 존귀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할 때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에너지를 자유롭게 발전시키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업은 노동의 생산력과 사회의 부(富)를 높여 주지만, 노동자를 특정한 능력만 반복 사용하는 기계로 만든다.

- ① 갑: 부지런히 일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
- ② 갑: 모든 소명은 존귀하기에 직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 ③ 을: 기술적 분업의 심화는 노동자의 자율성과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온다.
- ④ 을: 인간의 본질 실현을 위해서는 사적 소유의 폐지와 분업의 철폐가 필요하다.
- ⑤ 갑, 을: 노동의 본질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7

24)

4 갑 사상이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경향성에 따라 결심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행복을 증진해야 하는 것은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법칙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 할 때 비로소 그 행동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을: 행위는 행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옳은 것이 되고, 행복에 반대되는 것을 산출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 그른 것이 된다. 그런데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 외에 질도 고려해야 한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 보기 】

- ㄱ. 자기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ㄴ. 선의지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님을 간과한다.
- ㄷ. 행복과 만족이라는 전혀 다른 두 관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함을 간과한다.
- ㄹ. 자신의 행복에 마음을 쓰는 것은 도덕적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5)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모든 공동체는 선을 추구하는데,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최고이며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다른 아닌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이다.

을: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 ① 갑: 정치적 의무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서 유래한다.
- ② 갑: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간의 합의에 의해 국가가 발생한다.
- ③ 을: 명시적 동의를 한 사람만이 정치적 의무를 지게 된다.
- ④ 을: 입법권을 항상 지닌 국민이 신탁을 위반한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
- ⑤ 갑, 을: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인이 국가에 우선한다.

26)

14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모든 예술은 쓸모가 없는 것이며,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존재로서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볼 수 있는 선택된 존재들이다.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필요 없다.

을: 좋은 예술이 되려면 작가가 직접 체험한 감정을 작품 안에 담아냄으로써 독자가 작가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인을 결합시키는 감정으로서 인간은 누구나 다 신의 아들이고 같은 동포라는 자각에서 나오는 감정과 단순하면서도 일상적인 감정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병: 취미란 대상이나 표상 방식을 일체의 관심 없이 만족 또는 불만족을 통해 판정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러한 만족의 대상을 아름답다고 일컫는다. 미적 판단은 감성적 판단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며 조금의 이해 관심이 섞여 있지 않다. 그런데 미적 판단에는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결합되어 있다.

- ① 갑: 예술은 그 자체 이외의 어떤 목적도 가져서는 안 된다.
- ② 을: 예술은 사랑이 넘치는 도덕적 사회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
- ③ 병: 미적 판단은 주관적이며 도덕적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갑, 병: 예술은 도덕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성을 지닌다.
- ⑤ 을, 병: 예술 활동은 도덕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27)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평화 상태는 국가 간의 제약이 없는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평화 연맹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 연맹은 자유의 유지와 보존을 위하여 타국과 결합하는 것이며, 이 이념은 점차 각국에 확대되어서 궁극적으로 영구 평화로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 관계의 조건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한다.

을: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모두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폭력은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삼각형에서 어떤 꼭짓점에서도 출발할 수 있고 다른 꼭짓점으로 쉽게 전달된다.

- ① 갑: 영원한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법의 내용에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 ② 갑: 영원한 평화를 위해 각 국가는 자유를 포기하고 공법의 규제하에 들어가야 한다.
- ③ 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만이 모든 폭력의 출발점이 된다.
- ④ 을: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제도적 개혁은 평화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 ⑤ 갑, 을: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무력을 포기해야 한다.

28)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갑: 공동의 힘 전체를 구성원 각자의 인격·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쓰는 결사의 형태, 이를 통해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결사의 형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사회 계약이다.

을: 공정한 재판관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재산에 대한 안전한 향유가 불확실하므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사회에 양도해 입법 기구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더라도 위탁받은 입법 기구의 권한 남용은 국민의 복종할 의무를 무효화한다.

(나)

- ① A: 주권은 대의제에서 입법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양도될 수 있는가?
- ② B: 일반 의지를 따르는 한 자신도 자유롭고 타인의 자유도 보장되는가?
- ③ B: 항상 옳고 공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통치 원리로 삼아야 하는가?
- ④ C: 사회 계약은 각자의 인격과 재산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필요인가?
- ⑤ C: 자연법의 기초는 이성이며 자연법 준수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29)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풍요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기초적 복지를 위협하지 않고도 극단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원조해야 한다.

을: 고통받는 사회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데 필요한 정치 문화가 결핍되어 있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 ① 갑: 원조의 효율성을 고려해 인접국의 빈민만을 원조해야 한다.
- ② 갑: 원조의 결과로 모든 사람의 경제적 이익이 증진되어야 한다.
- ③ 을: 원조 시행 시 인권에 대한 강조는 원조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 ④ 을: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 ⑤ 갑, 을: 절대 빈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은 원조 목표가 될 수 없다.

30)

18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인간은 통상 한갓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를 가질 수 없다. 자연 중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파괴적 성향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을: 지구 생물권 자체가 유기체와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실체의 안녕이 윤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초유기체가 아니라 개별 유기체의 고유한 선이다.

병: 토양-식물-동물-인간이라는 먹이 사슬에 의존하고 있다는 근본 사실을 일깨우는 경험이라면 어떤 것도 가치 있다. 유기체의 내재 자기 회복 능력은 인간과 토양 모두에 적용된다.

- ① 갑, 을: 생태계의 모든 존재가 인간의 직접적 의무 대상인 것은 아니다.
- ② 을, 병: 생물 군집과 생태계는 상호 작용의 긴밀한 질서 체계이다.
- ③ 을, 병: 개별 유기체의 고유한 선은 생태계 전체의 선보다 우선한다.
- ④ 갑, 을, 병: 인격 상호 간의 도덕적 의무는 규범적 당위성을 갖는다.
- ⑤ 갑, 을, 병: 도덕 행위자는 생태계의 동식물에게 잔혹해서는 안 된다.

31)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인간 집단의 근본 관심은 강제력 없이 완전히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의는 있되 비폭력적인 강제력이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비폭력적 강제력과 저항은 사회생활에서의 합리적 요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강제력과 갈등의 완전한 제거보다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더 큰 강조점을 둘 것이다.

보기

ㄱ. 강제력의 사용 없이는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ㄴ. 인간의 합리성이 수궁할 수 있는 강제력을 사용해야 한다.
 ㄷ. 집단 간의 힘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강제력의 사용이 필요하다.
 ㄹ. 개인 간의 갈등은 강제력 없이 합리적 요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9

32)

17 갑, 을 사상가들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취미(趣味)란 일체의 관심을 떠나 만족 또는 불만족에 의해 대상 또는 표상의 양식을 판정하는 능력이다. 그러한 만족의 대상을 아름답다고 부른다. 미(美)에 관한 판단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혼합하면 그 판단은 편협함 또는 편파성이 개입되어 순수한 취미 판단일 수 없다.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을: 농부가 음악에 빠지면 경작에 전념할 수 없어 곡식이 부족해지고, 여인이 음악에 빠지면 천이나 비단 짜는 일에 전념할 수 없어 입을 것이 부족해진다. 왕공대인이 음악에 빠지면 나라를 돌보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음악을 즐기는 것은 잘못이다.

- ① 갑: 미적 가치의 추구 활동은 인간의 도덕성 실현과 무관한가?
- ② 갑: 취미 판단은 논리적 인식에 의한 판단이 아닌 감성적 판단인가?
- ③ 을: 음악은 노동 의무의 고양과 통치 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인가?
- ④ 을: 음악의 목적은 도덕적 품성 함양이므로 감정 표현과는 무관한가?
- ⑤ 갑, 을: 음악은 사회적·정치적 효용성과 상관없는 순수 예술의 영역인가?

33)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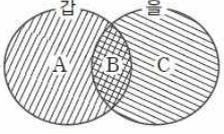
갑: 정치 공동체는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은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재산의 안전한 향유와 평화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국가는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다.
 을: 모든 공동체는 좋음(善)을 실현하기 위해 형성된다. 가정과 마을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국가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국가는 이러한 공동체들의 최종 목표로 으뜸가는 좋음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한다.

【보기】
 가. 갑: 국가는 시민의 자유 보호를 위해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갑: 국가는 명시적 동의를 한 시민에게만 법률의 집행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 을: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형성되어 시민의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한다.
 라. 갑, 을: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공동체이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 ④ 나, 라 ⑤ 다, 라

34)

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개인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차등의 원칙은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더 적은 재능을 타고난 이들의 선에 공헌하도록 사용하는 방식이다. 을: 개인은 자신의 천부적 재능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이로부터 유출되는 소유물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차등의 원칙은 정형적 원리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iv>

【보기】
 가. A: 천부적 재능 분포의 자연적 사실은 부정의하므로 조정되어야 한다.
 나. A: 사회적 약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사용할 수 있다.
 다. B: 자신의 천부적 재능 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유는 기본적인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
 라. C: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분배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다, 라
- ④ 가, 나, 다 ⑤ 나, 다, 라

35)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가장 적절한 체제인 공화제를 위해 노력해야만 하며, 이러한 준칙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무이다. 또한 근원적인 사회 계약의 이념에 따라 국가들의 평화 연맹이 필요하며, 오직 이러한 보편적인 평화 연맹에서만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영원한 평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 ① 영원한 평화를 위해 평화 연맹은 주권적 권력을 지녀야 한다.
- ② 주권국들은 평화 연맹을 결성해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켜야 한다.
- ③ 공화제가 아닌 국가에 무력을 행사하여 공화제를 확산시켜야 한다.
- ④ 영원한 평화를 위해 평화 연맹을 국제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⑤ 평화 연맹은 주권 국가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만 관여해야 한다.

36) [주관식] 골라!

‘인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류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존재론적 명령이 된다. 따라서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실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후세대의 권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은 의무로 인정된, 다른 존재에 대한 염려이며, 책임의 대상에 대한 공포를 자신의 공포로 습득하여 행위의 의무로 전환시킨다.

- 보기
- ㄱ.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일방적 책임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ㄴ. 현세대는 자기 행위에 대한 사전적 책임을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
 - ㄷ. 현세대의 책임의 범위는 미래 세대의 실존 보장으로 한정해야 한다.
 - ㄹ. 미래에 대한 공포보다 희망에 근거해 현세대의 책임을 도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7)

3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인간이 아닌 존재와 관련한 의무를 이들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물 학대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p> <p>을: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들은 생명에 대한 자연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p> <p>병: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 고유의 선을 증진할 능력과 기회가 있는 생명체는 자유롭다.</p>
(나)	<p>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p>

- 보기
- ㄱ. A: 인간이 아닌 존재와 관련한 인간의 의무는 성립 불가능한가?
 - ㄴ. B: 일부 생명체만이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ㄷ. C: 이성적 존재만이 아니라 비이성적 존재도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
 - ㄹ. D: 생태계에 대한 개입이 자연 존중의 태도와 양립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8)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과제를 이루려면 안도감과 평화를 주는 거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히 집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이 거주할 수 있으려면 임시로 아무 곳이나 정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거주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거주는 특정한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공공의 영역과 분리된 사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을 때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고, 자기 삶의 중심인 집에서의 체험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 ① 거주는 인간의 선천적 본능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완성된다.
- ② 거주는 집을 소유하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 ③ 거주는 인간이 친밀한 공간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 ④ 거주 의미는 체험이 아닌 특정 장소에 속함으로써 결정된다.
- ⑤ 거주는 인간이 세계로부터 영원히 고립되어 삶의 중심을 발견하는 것이다.

39)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은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정의로운 제도와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도이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을: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거나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타격, 즉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① 갑: 모든 사회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 ② 갑: 다수가 공유하는 종교적 교설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이다.
- ③ 을: 시민 불복종에 앞서 합법적 해결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 ④ 을: 시민 불복종은 실패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해야 한다.
- ⑤ 갑, 을: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역대 ebs 수완 모고 선별 (짝수년) 2 답

- 1) ④
- 2) 다, 르
- 3) ①
- 4) ①
- 5) ③
- 6) 나, 다
- 7) 가, 다, 르
- 8) ⑤
- 9) ③
- 10) ④
- 11) 가, 르
- 12) 4
- 13) 3
- 14) 5
- 15) 4
- 16) 5
- 17) 나, 다
- 18) 3
- 19) 5
- 20) 1
- 21) 3
- 22) 4
- 23) ③
- 24) ①
- 25) ①
- 26) ③
- 27) ④
- 28) ①
- 29) ③
- 30) ③
- 31) ④
- 32) ②
- 33) ②
- 34) ③
- 35) ⑤
- 36) 가, 나
- 37) ⑤
- 38) ③
- 39) ③